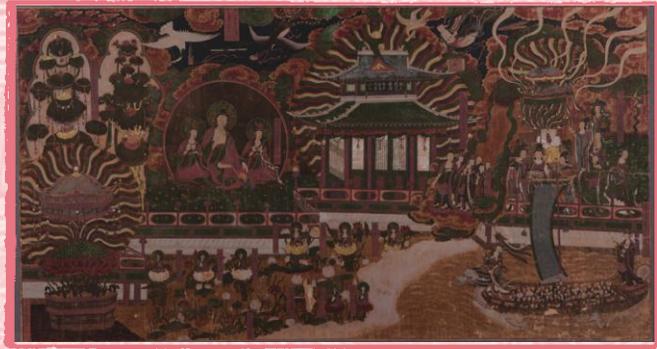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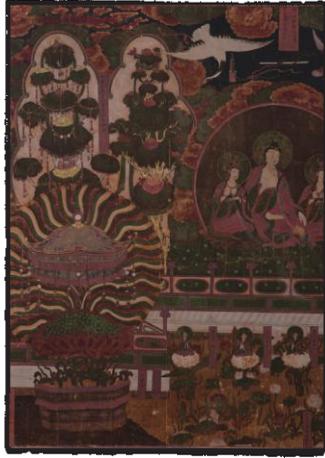


정각도량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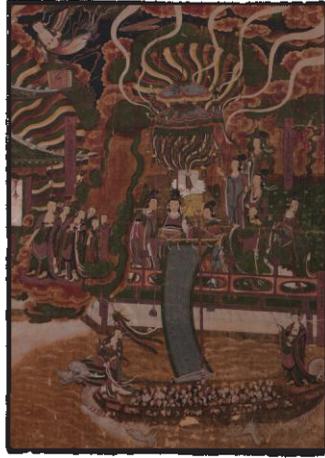
불기 2566(2022)년 / 정각도량 제155호 / 비매품 포교지 / 발행처 : 동국대학교
서울 · 경주캠퍼스 정각원 / <http://jeonggak.dongguk.edu>



특집 | 온라인 포교의 활성화



향 좌측 '아미타삼존, 구품九品연못, 칠보수, 극락조, 보련' 등의 부분도



향 우측 '반야용선' 부분도

극락왕생의 간절한 염원, '銀海寺 <念佛往生捷徑圖>'

영천 은해사 성보박물관에는 조선시대 염불신앙念佛信仰의 성행과 정토관淨土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그 장대함이 독보적으로 뛰어난 불화가 소장되어있는데 이는 바로 1750년에 조성된 '〈염불왕생첩경도〉'이다.

조선시대 불교는 보다 많은 중생들을 포용하고 대중화하기 위하여 '칭명염불稱名念佛'을 통한 수행을 중요한 방편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극락왕생을 위한 중생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염불왕생첩경도〉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는 정토신앙의 근본 경전인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에 명시된 극락왕생의 장면을 시각적으로 도상화한 불화이다.

이 불화는 가로로 긴 화폭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화면에는 일체의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이 가득한 서방정토극락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아미타삼존阿彌陀三尊과 구품九品연못, 칠보수七寶樹, 칠보누각七寶樓閣, 극락조極樂鳥, 보련寶蓮 등으로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으며 다수의 왕생자를 태우고 정토로 향하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

마치 반야용선이 극락에 방금 도착한 듯한 극적인 모습을 담은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는 웅장한 화면의 구도, 우아하고 다양하게 묘사된 소재, 기품 있는 아미타삼존상과 행동이나 표정에서 생동감 넘치는 왕생자들의 표현, 섬세하고 유려한 필선과 문양,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의 붉은색과 녹색의 색조, 과도하지 않게 부분적으로 사용된 화려한 금니金泥 기법 등이 이 불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 조성된 정토계 불화 가운데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는 반야용선이 표현된 가장 이른 작례로 이후 조성된 반야용선도의 본보기로 계승·발전되는 매우 중요한 불교미술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는 30여 년 전 도난당해 소재불명 상태였으나 2010년 6월에 은해사로 환수되었는데 도난 당시 화기畵記부분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1990년에 발행된 『사찰소장불화조사Ⅱ』에 기록된 화기 내용으로 '건륭십오년乾隆十五年(1750년)'이 전하고 있어 불화의 조성연대를 알 수 있다. 고승희 / 미술학 박사



표지 사진

銀海寺 <念佛往生捷徑圖>, 보물 제1857호, 1750년, 絹本彩色, 159.8×306.5cm, 경상북도 영천시 은해사 성보박물관 소장

정각도량 통권 155호

- 발행일 : 2022년 3월 2일
- 발행처 : 동국대학교
서울 · 경주 캠퍼스
- 서울정각원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 (02)2260-3015-8
Fax : (02)2260-3744
- 경주정각원
38066 경주시 동대로 123
Tel : (054)770-2915
Fax : (054)770-2009
- 발행인 : 윤성이
- 편집인 : 정혜린(진명스님)
이창안(철우스님)
- 편집위원 : 정혜린, 이창안
정승석, 안양규
- 편집주간 : 정승석
- 편집간사 : 이민기
- 편집사무 : 이다빈
- 디자인 / 인쇄 : 중도기획 (02)2278-2240

정각도량 155호

불기 2566(2022)년 봄호

제호 정각도량은 세종 29(1447)년에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양하여 한글로 지은 月印千江之曲에서 집자한 글씨.

정각도량

2 무수무증無修無證은 정말 닦지 말라는 말인가? / 철우스님

특집 | 온라인 포교의 활성화

- 6 온라인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이필원
- 9 인터넷을 넘어 메타버스로 포교를 / 이재수
- 13 온라인 포교의 활성화 방안 / 류현석

불교 수행의 길잡이

17 나와 모두의 행복을 위한 불교 수행 / 이철헌

내 마음의 금언

20 일일부작 일일불식 / 김봉주

사찰음식 테라피

23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 음식 / 안양규

초기 경전의 법문

26 마라의 유혹과 장애의 극복 / 김경래

불교와 사회복지

28 매일매일 '아이'라는 불성의 존재와 만나다 / 백지숙

불심의 창

30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신중神衆님 / 진옥 스님

건학이념

본교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 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총망라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한다.

교육 목적

본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 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무수무증無修無證은 정말 닻지 말라는 말인가?

철우 스님 |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중국불교는 인도와 서역의 불교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 왔으며, 최종적으로 조사선(祖師禪)으로 귀결되었음은 모두가 인정하며,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또한 조사선은 무엇보다도 ‘돈오頓悟’를 강조하며, 나아가 불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행修行과 증과證果에 대하여 수행도 없고, 그에 따른 증과도 없다는 ‘무수무증無修無證’이라는 파격적인 제시를 하고 있음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예를 들자면, 선가禪家에서 많이 인용하는 『신심명信心銘』에는 그 첫 구절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간택함을 꺼린다.[至道無難, 唯嫌揀擇]”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지극한 도는 우리가 고르고 택하는 간택揀擇의 작용을 하지 않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도의 체는 폭이 넓어, 쉬울 것도 어려울 것도 없다.[大道體寬, 無易無難]”라고 하여 대도를 체득하는 것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 않음”에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 않음”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조사선’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마조 도일馬祖道一 선사의 ‘도불용수道不用修’를 떠올린다. ‘도불용수’는 필연적으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와 함께 설해질 수밖에 없는데, 도를 닦을 필요가 없는 까닭이 바로 ‘평상심’이 도이기 때문이다. 마조의 어록에는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오염汚染되지 말라. 어떻게 오염되는가? 다만 생사生死的 마음이 있어 조작하고 쫓아가면 모두 오염이다. 만약 곧바로 그 도를 깨닫고자 한다면, 평상심平常心이 도이다. 무엇을 평상심이라 이르는가? 조작造作이 없고, 시비是非, 취사取捨, 단상斷常, 범성凡聖 등이 없는 것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이는 워낙 유명해서 조사선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모두 들어본 구절이다. 또한 마조 계열의 가장 유명한 임제 의현臨濟義玄 선사도 그의 어록에서 “불법佛法은 노력할 바가 없는 것이며, 단지 평상平常의 일이 없는 것이다.[佛法無用功處, 只是平常無事]”라고 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사선에서는 정말로 모든 수행과 증과를 부정하고, 다만 ‘평상심’이나 ‘일이 없음’을 실현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지도至道’, ‘대도大道’를 얻을 수 있을까? 앞에서 『신심명』이나 마조, 임제 선사를 언급했지만, 조사선에 속한 대존숙大尊宿들의 어록이나 저술에는 위와 같이 ‘수행’을 부정하고 ‘평상’을 중시하는 문구들을 수없이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조사선에서는 거의 모든 선사들이 ‘무수무증’을 제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행을 하지 않는데도 증과인 ‘대도’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선뜻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이 과연 선사들이 설하는 ‘평상’과 일치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봐

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선택하여 그를 실행하는 것을 ‘평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게 하는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먹을까? 된장찌개 혹은 김치찌개, 아니면 비빔밥? 또한 실제로 먹는 행위에 들었을 때도 여러 반찬 가운데 무엇을 먼저 먹을까? 등으로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 무의식중에 행하는 것이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취하고 버리는 취사取捨의 작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은 항상 수만 가지의 상념이 깃들여 있고, 또한 끊임없이 그를 선택하여 행동에 옮긴다.

이러한 ‘일상의 생활’은 결코 선사들이 설하는 ‘평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마조 선사가 ‘평상심’을 설명할 때, ‘조작, 시비, 취사, 단상, 범성’ 등이 없어야 비로소 ‘평상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 우리 일상에서의 마음은 언제나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취사의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미 ‘오염’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심명』에서 말하는 ‘지도’에 도달하는 관건인 ‘간택’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작, 시비, 취사, 단상, 범성’ 등이 없이 살 수 있을까? 그 경계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도불용수’의 대전제가 무너져버린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단계를 설정해 놓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사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오頓悟’이다. 이 돈오의 사상과 앞에서 논한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 비로소 온전해지게 되고, 그때서야 진정한 ‘무증무수’의 의미가 성립할 수 있다. 필자에게는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이 문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사선의 출발은 바로 『육조단경六祖壇經』이라고 할 수 있다. 『육조단경』은 육조六祖 혜능慧能 선사가 반야부 경전인 『금강경金剛經』을 대범사大梵寺에서 강의한 것을 모은 어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성佛性を 자성自性과 자심自心으로 해석하고, 돈오頓悟를 제창하고 있다. 이는 그 이전의 선사상과는 본질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이고, 또한 수증修證에 있어서도 최초로 무수무증無修無證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육조단경』에서는 비록 ‘즉심즉불即心即佛’과 ‘무수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사상적으로는 그러한 사상들을 배태시켰으며,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돈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돈오는 동진東晉시기 축도생竺道生에 의하여 법성法性과 반야般若의 관계문제를 탐구하다가 제창된 것으로, 그 개념은 “돈頓이라 하는 것은 이치를 나눌 수 없음[理不可分]을 밝힌 것이고, ‘오悟’는 극조極照를 말한다. 불이不二의 깨달음으로 나눌 수 없는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치[理]와 지혜[智]가 함께 희석됨을 돈오라고 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법성의 ‘이치’와 반야의 ‘지혜’가 ‘불이’의 상태로 희석됨을 돈오라고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이 우주법계의 움직임을 논하는 ‘이치’가 반야의 ‘지혜’가 발현되는 우리 존재의 ‘마음’이 하나로 희석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나’를 구성하는 중심인 마음과 나 이외의 만법이 둘이 아니게 결합하여 극조極照함이 바로 ‘돈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돈오’는 결코 기존의 ‘학學’이나 ‘수修’로는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수행하거나 배우고자 한다면 주체主體,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능能이 현현해야 하고, 배우거나 수행하려는 주체가 존재한다면, 필연적으로 대상, 즉 ‘소所’가 또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나와 방법이 결합하는 ‘돈오’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배움이나 수행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오’는 어떻게 도달하는가? 도생은 먼저 교학敎學에 의지하여 ‘금강심金剛心’을 증득한 이후에 발상을 전환하여야만 돈오에 이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육조단경』에서는 반야법에 의하여 불성을 ‘자심自心’과 ‘인심人心’으로 해석하고, 이를 ‘돈오’를 통하여 증득할 것을 제창하는데, 그에 도달하는 방법을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의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이를 모두 설명하자면 길어지지만, ‘무념’을 예로 들어 보자면, “무념이란 생각함念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不念]이다.”라고 설한다. 따라서 ‘무념’이란 결코 생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념一念이 끊어지면 바로 죽음”이라든가 “염念이 끊어지면, 바로 법박法縛이 된다.”라고 하여 ‘무념’을 생각이 없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강조한다. 그렇다면 ‘무념’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육조단경』에서는 “없다는 것은 이상二相의 모든 번뇌에 ㄸ달림諸塵勞을 떠난 것이고, 생각은 진여본성眞如本性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설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은 진속眞俗의 두 가지이며,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모두 번뇌에 ㄸ달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를 떠나 ‘진여본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하게 반야의 ‘유무有無’ 양변을 떠나 중도中道에서 관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하겠다.

이러한 『육조단경』의 ‘무념’은 그대로 마조, 임제의 ‘평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상념想念에 있으면서도 그에 ㄸ달리지 않으면서,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는 생각도, 세속의 욕망에 물든 생각도 없이 ‘여여如如’한 상태가 바로 ‘평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평상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평상심’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한다면, 축도생이 제시한 바와 같이 먼저 ‘금강심’을 얻고서, ‘돈오’를 실현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사들은 무엇 때문에 먼저 교학에 대한 수행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사선에서 추구하는 ‘돈오’에 입각한다면, 수행의 계급과 지위를 시설하는 것 자체가 자체모순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마조의 어록에는 “도는 수행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 수행하여 얻는다면, 수행의 이름은 다시 무너지니, 바로 성문聲聞과 같다. 만약 ‘불수不修’라면, 바로 범부와 같을 것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조 선사는 “만약 상근중생上根衆生이라면, 홀연히 선지식의 지시指示를 만나 언하言下에 깨달음을 얻어 다시 계급階級과 지위地位를 거치지 않고서 본성本性을 ‘돈오’할 것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마조 선사의 말에서도 ‘상근중생’의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여 부처님께서 설한 교학의 체계를 차분히 밟아 근기를 성숙시켜 ‘상근중생’이 된 다음에 선지식을 만나야 비로소 ‘돈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조사선에서 ‘무수무증’을 제창한 것은 그 바탕에 ‘돈오’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라든가 ‘평상심이 도이다’라는 말도 ‘돈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돈오’에 이르기 전에는 철저하게 부처님께서 시설한 교학의 과정을 밟아 ‘금강심’을 얻어야만 한다. 따라서 조사선에서 제창하는 ‘무수무증’은 결코 수행을 부정하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수행을 하여 더 이상 수행이 필요치 않을 경지에 이르러 ‘돈오’를 이루라는 말이라고 하겠다. **정각도량**



온라인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필원 | 경주캠퍼스 파라미터칼리지 교수

지난 20세기를 거치면서 인류의 문명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하게 되면서 인류의 삶은 커다란 전환을 맞게 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iPhone 1세대는 2007년 1월 9일 <맥월드 2007>을 통해 처음 등장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은 스마트폰에 최적화 되기 시작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른바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개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대중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기존의 주류 미디어들 역시 이에 부응하며 엄청난 변화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오늘날 가장 강력한 것은 아무래도 Youtube일 것이다. 2005년도에 Youtube가 등장하면서 개인 콘텐츠 생산과 소비는 일대전환을 맞이 하게 된다. 물론 처음에 Youtube는 생각보다 저변확대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2006년도에 구글이 인수하면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SNS의 경우는 국내의 경우는 band, kakao 등이 있으며, 해외의 경우는 Instagram, facebook 등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2022년이 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메타버스(Metaverse)이다. 이는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의 상위 개념이다.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시켜 가상의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메타버스라고 한다. 앞으로의 세계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을 만큼 인류의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류는 2007년 등장한 스마트폰, 그리고 5G를 넘어 6G로 나아가는 인터넷 환경의 발달, AI의 빠른 발달, 여기에 메타버스가 더해지면서 한층 진화된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이는 당연히 인류의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요할 것이다. 기존의 세계관과 생활패턴을 통해서는 더 이상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생각보다 세계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어찌 보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앞으로 얼마나 빠른 변화가 있을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기에 기존의 세계관과 지식을 갖고서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한다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고 20세기의 세계 속에 갇혀 지내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불교계는 어떠한 포교전략을 세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는 풀면 좋 못 풀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화두가 아니다. 절체절명의 화두이다. 이를 못 풀면 죽게 되는 그러한 화두인 것이다.

그 옛날 거란과 몽고의 침입 시 우리의 선조들은 목판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한자 한자 새겨 넣었다. 이는 당시에 가장 발달된 인쇄문화와 기술의 집약판이기도 했다. 팔만대장경 목판을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인쇄할 수 있는 목판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의 주인공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 팔만대장경이 한 사람의 원력이나 몇몇 자산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렇지 않다. 국가적 역량의 집약체였다. 국가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이룬 성과이다. 스님[경전 전문가 및 문헌학자], 목재 전문가, 활자를 새겨 넣을 도구를 만드는 장인들, 종이 전문가, 서예가, 행정업무 담당자 등 정말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국가사업이었다. 국가가 진행한 사업이었기에 그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신심으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심을 기반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인 결과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온라인 기반의 포교 혹은 전법의 방법론을 세우는데 있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아주 좁게 본다면 조계종의 총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넓게 본다면 전불교계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가 생각하는 안을 제안해 본다.

온라인 포교/전법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한다. 부서의 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AI, 메타버스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비전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부서 내 콘텐츠 개발팀, 운영 및 실행팀, 분석팀을 설치한다. Youtube, Instagram, facebook, band, kakao 등 플랫폼의 특성에 따른 콘텐츠 개발팀이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콘텐츠 개발팀 내에는 관련 인접 학문과의 연계 및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 뇌과학, 물리학, 예술 및 공연분야, AI, 메타버스, 일러스트 등의 전문가 집단이 또한 구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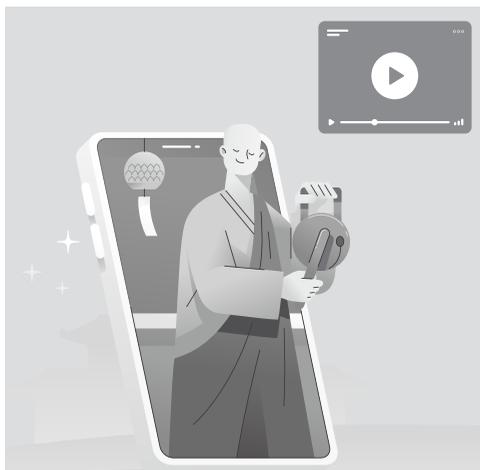
이를 통해 기존의 온라인 기반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생산함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예측하는 적극적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조직의 가장 근원에 끊임없이 원천 소스를 제공하는 불교학자들의 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불교계의 가용 자원-인적, 물적-을 최대한 결집해야 가능한 일이다. 인력구성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앞서가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벅차 포기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 바로 명상이 그것이다. 명상 혹은 수행이라고 하면 불교의 내적 재산이자, 다른 전통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콘텐츠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명백한 착각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명상은 서양에서 프로그래밍되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한국에 역수입되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진행되는 명상프로그램 중 대부분은 서양에서 조직화된 명상프로그램이다. 국내의 자생적 명상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국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세계적으로 보급되지는 못했다. 그나마 불교라는 영역을 벗어나면 거의 사용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요즘 명상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면 명상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서양의 프로그램을 모방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서양의 명상프로그램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불교의 수행프로그램을 원천으로 해서 재해석되고 프로그램화된 것이다. 그것은 의사, 심리학자, 불교명상 전문가, 불교학자, 상담학자 등이 모여 협력한 결과이다. 그 과정에서 투입된 인력과 자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방대한 규모이다. 그렇기에 그 프로그램이 탄탄한 배경을 갖고 효과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저 겉모습을 흉내낸다고 해서 같은 효과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듯 명상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어찌보면 서양에 선점당한 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재활용하거나 그저 답습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온라인 상황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불교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젊은 세대의 탈종교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기존의 세계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질서는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불교는 오래된 종교이자 구시대적 세계질서의 하나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물론 서양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기독교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양에서의 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시도는 분명 한국에서 나아가 동양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양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정립된 불교이지 한국 전통의 불교와는 그 색이 크게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도태와 서양에서의 새로운 불교의 이식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선조들이 팔만대장경을 목판에 한자 한자 새겨가면서 만들어 놓은 시대적 비전을 제시하는 불교와 같은 혁신적 불교를 재현할 것인지를.

온라인 포교/전법의 활성화는 시대적 요청이자, 흐름이다. 이를 구시대적인 발상과 안이한 태도로 임해서는 언제나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Youtube 등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불교 및 불교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이미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는 것일 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발적인 자세는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늘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지금까지 전승해 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 불교는 보다 한 발 앞선 창발적 자세가 필요하다.

몇몇을 모아 생색내기나 흉내내기가 아니라, 불교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범불교 내지는 조계종 내 온라인 세계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종합적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앞으로 수십 년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 갈 때, 현대판 팔만대장경의 불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정각도량**

인터넷을 넘어 메타버스로 포교를

이재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

포교의 역사

불교사는 포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붓다는 '전도선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고 하셨다. 이 지점이 바로 포교의 목표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되고 편안함을 위한 길이 포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셈이다. 이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게, 논리정연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법을 설하라”고 하셨다. 즉 목표로 삼는 의도와 그 수단과 결과가 모두 선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에는 불교를 토착화하기 위해 포교활동에 진력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원효, 의상을 비롯한 수많은 고승들이 출현하여 민중들 사이에 뛰어 들었다. 원효대사는 천춘만락을 떠돌아다니면서 거문고를 타고 무애가를 노래하고 춤추면서 대중불교의 기틀을 잡았다.

이때부터 불교는 항상 각 시대에 최고의 선교 방법善巧方便을 통해서 대중들과 만났다. 근대시기에 불교계에서는 '명진학교'를 설립하여 포교사의 양성에 주력하였고, 그 전통은 현재 동국대학교로 이어져 현대적인 포교 교육의 터전이 되었다. 용성스님은 대각사에서 풍금을 치고, 찬불가를 부르면서 현대적인 포교활동과 독립운동에 온 힘을 다하였다. 아울러 만해스님은 불교유신론을 통해 불교의 개혁과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불

교대중화를 위해 <불교>라는 잡지를 통해 한국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불교의 사상을 알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디지털 시대의 포교

현재 우리는 어떻게 포교를 해야 하는가? 인터넷 포교는 이제 낯선 말이 아니다. 붓다의 교법을 널리 세상에 알리는 것이 포교인데,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현재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과 스마트미디어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도구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필수불가결한 환경이 된지 오래되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즉시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을 하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인터넷 누리집에 특정한 정보를 쌓아놓기만 하면, 구글과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검색 로봇이 자동적으로 색인을 잡아서, 검색창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에 한 사람 스마트 폰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나'가 있다. 저 곳 어딘가에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의 글귀를 웹에 올려놓거나, 편안한 산사의 풍경이나 불상이나 불화 등을 올려놓은 '너'가 있다. 나와 너는 무수한 한 점들로 흩어져 있지만,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접속하고, 또 다른 관계에서 수많은 선들이 모여서 정보가 쌓여지는 공간이 생겨난



동국대,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메타버스로 만나는 국보 반가사유상
© BTN불교TV

불교적 지식생산 플랫폼의 모델인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kabc.dongguk.edu)에는 우리나라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지식콘텐츠가 담겨져 있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

다. 이 공간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변화하는 흐름들이 시간으로 흐른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서로를 끌어당겨 '우리'가 되고 의도를 지닌 행위가 '업'이 되고 그 업이 모여서 세계가 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일으킨 생각, 내뱉은 말, 행동, 그 행동으로 인해 파생된 문자와 글, 형상으로 그려낸 그림, 도구를 통해 찍어낸 사진 등의 날 날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의미를 가진 정보가 되고, 이것이 체계화된 지식이 되고, 도구를 통해 의도를 지니고 확산하기 위해 재가공하면 콘텐츠가 되어 세상과 만난다. 마치 인드라마의 그물로 불교가 지닌 가치를 담아 감성을 통해 상상력으로 창조한 불교문화콘텐츠가 법계에 가득 차 있다.

불교문화콘텐츠, 포교의 원동력

과거의 문화콘텐츠의 향유 양상은 시청각 중심이었고, 매스미디어의 일방향 소비였지만, 현재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보고, 들으면서 만지고 드래그하며 이를 재가공하여 SNS채널에 해시태그를 달고, 퍼 나르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고 향유한다.

불교 포교의 핵심동력은 바로 불교문화콘텐츠이다. 불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불교문화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공업의 산물이고, 공유를 전제로 누구나 함께 누리기 위해 만들고 나누어야 한다.

다. 과거에 한국불교가 역사적으로 남긴 기록문화에 담겨 있는 수많은 메시지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아카이브를 구축해 놓았다. 그러나 이곳에 갈무리된 불교의 다양한 기록이 정보가 되고,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가공이라는 행위를 통해야 한다. 불경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재창작의 과정을 거쳐야만, 다른 사람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 메타버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디지털 사회로 강제적으로 이전한 셈이다. 그런데 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이다.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공생과 포용의 가치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더욱 그 가치가 빛났다. 과거의 불교는 늘 역사를 선도해왔고 시대적 물음에 답을 해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바로 그 답을 메타버스에서 찾고자 한다. 메타버스는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이미 오래전인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 등장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증강

현실(AR)·혼합현실(MR) 등으로 융·복합 형태로 진화 중이다. 보통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에서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까지 누리고 있다. 현 디지털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에 콘텐츠와 서비스를 엮어서 수익과 시장을 선도하려는 '플랫폼X' 사업들이 교육, 문화, 금융, 유통, 의료, 에너지, 교통, 공연, 스포츠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K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오프라인 대면 행사 개최가 어려워지자,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팬과 팬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이벤트를 기획하였는데, 블랙핑크, ITZY의 가상 팬사인회를 시작으로 '제페토'는 비대면 시대의 K팝 스타와 팬덤이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이 되어주었다. 아올러 에스파(aespa)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멤버가 디지털 세계를 통해 성장하는 컨셉으로 데뷔하였다. 현대자동차의 프로모션과 도쿄올림픽도 메타버스에서 열렸다. 유튜브의 가장 강력한 적은 넷플릭스가 아니라 '로블록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구찌 가든'이 공개되었다.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바꾸기까지 하였다.

메타버스에 올라탄 불교계

동국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입학식은 물론 졸업식을 열기도 하였다. 특히 동국대학교가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기획연구를 위한 TF팀을 출범하고 메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심신 건강 치유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번 기획연구는 명상을 메타버스와 융합해 기존의 명상 솔루션과 차별화를 꾀했다는데 주목받고 있다. 대면 수업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 돼 있

는 명상 프로그램들이 가상공간에서 등지를 튼 것은 매우 흥미롭다. 월정사는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을 개발해 뇌파측정기와 HMD(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요가, 명상들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하였다. 보원사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비디오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가상공간에서 보원사 불사를 하는 '보원사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보원사지의 역사적 공간에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보원사를 복원한 시도였다. 연등회가 온라인에서 열렸고, 손 안의 명상 등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신행이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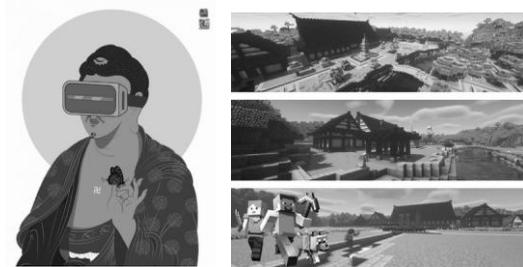
마음챙김 명상 애플리케이션 '마보'는 지난달 20일부터 SK텔레콤과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를 통해 '마보와 함께 하는 마음챙김 명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제페토에 가상박물관 '힐링동산'을 개원하였다. 이곳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이 함께 존재하는 가상세계를 구축하였다. 반가사유상의 미소와 사유의 철학이 전하는 치유와 힐링의 메시지를 글로벌 Z세대의 감성에 맞추어 새로운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경험을 설계했다.

메타버스 포교를 위해

메타버스에서 포교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자 한다.

첫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불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큰 위기를 가져왔지만, 불교계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산문을 닫으면서도 온택트로 소통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보시하는 방법을 찾았다. 사찰음식 도시락을 의



가상현실 기기를 쓴 아미타부처님 ©윤용진

보원사 가상현실 프로젝트 ©불광미디어

료진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코로나19 치유와 극복기도’를 올려 생필품과 마스크를 기부하고 자비의 손길을 펼쳐왔다. 여기에 더욱더 다양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디지털을 통해 모든 불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불교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불교문화 콘텐츠의 적극적인 개발과 공유가 필요하다. 메타버스에서의 다양한 불교 활동은 이제 막 걸음을 댄 상태이다. 이는 MZ세대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되는 새로운 플랫폼의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그 성공의 여부는 생태계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에 달려있다. 메타버스는 그 큰 이름에 맞는 개방형 플랫폼이 될지는 어떻게 생태계가 구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용자 콘텐츠 창작(UGC, User Generated Contents)을 위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어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으로 무엇을 서비스하고 어떻게 수익모델을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결국 종교적 체험과 불교적 가치를 확산하는 곳으로 다시 환원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메타버스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불교적 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시도해야 한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상융복합 세계에서 불교

적 가치관과 상상력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보다 다양한 불교적 메시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시도들이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불교적 세계를 가상공간에서 표현하고 다양한 체험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에 담긴 수많은 상징과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공감각적으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콘텐츠화하는 급선무이다.

메타버스의 흐름을 건너는 보살

메타버스는 현재 상업적 이용을 목표로 아바타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불교가 지니고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들일 수 있는 환경과 도구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공간에서 ‘무엇’을 펼쳐서 ‘어떻게’ 불교적 메시지를 전파하는가가 중요하다. 삼천대천세계는 온갖 불보살의 화현으로 갖가지 장엄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반야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선교방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교적 지혜와 가치를 메타인지 기반의 복합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더라도 다양한 플랫폼과 프로그램은 결국 반야의 바라밀행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체험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메타버스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다양한 체험의 영역의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결국은 보이지 않는 불교의 세계에 도달하는 뗏목이다.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체험해서 무엇을 얻게 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준비된 보살들의 노력의 몫이 될 것이다. **정각도량**

온라인 포교의 활성화 방안

류현석 | 보리수마을 대표

최근 WHO(세계보건기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종식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의 연속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많은 분야에서의 변화를 야기(惹起)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를 예로 들면 과거와 달리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 생까지 자택에서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원격(遠隔)수업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는 상황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삶과 공존(共存)하는 ‘위드(With) 코로나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규 확진자는 4,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22년 1월 16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여전한 가운데 불교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유튜브를 이용한 ‘온택트기도’

‘온택트(ontact)’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적 언택트(untact) 생활에 온라인을 통한 교류와 소통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자장율사가 창건한 문수보살의 성지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인 월정사는 코로나 시대 이러한 온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월정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찰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신도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콘텐츠로 유튜브를 통해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온택트(ontact)기도’를 들 수 있다.

‘온택트기도’는 사찰에서 진행되는 기도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송출(送出)하여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이다. 월정사는 새해맞이 철야 정진기도, 부처님오신날 석가모니불 릴레이 정근, 백중 용맹정진 등을 비롯하여 사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들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7일 철야 정진 행사는 신도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콘텐츠였다.

이러한 온라인 포교 콘텐츠의 제작으로 사찰에 방문하기 어려웠던 신도들은 휴대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실시간 유튜브를 통하여 사찰에 온 신도들뿐만 아니라 직접 오지 못하는 신도들까지도 스님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기도를 진행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온택트기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순간이다. 게다가 이 ‘온택트기도’는 신도의 확장성(擴張性)도

가지고 왔는데, 거리가 멀어 오지 못하는 신도나 다리가 아파서 오지 못하는 고령층의 신도까지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가오는 고령화시대에 사찰 방문이 어려운 신도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명상수행콘텐츠 활성화

‘온택트기도’에 그치지 않고, ‘온택트 불교명상’을 통한 포교도 하나의 포교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월정사에서 ‘불꽃 속에 피는 연꽃’이라는 제목으로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명상수행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다. ‘행복에 투자하십시오. 수행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같이 수행합시다.’라는 지도법사 스님의 말씀에서 느낄 수 있듯이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실시간으로 스님들과 함께 명상수행을 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이러한 명상수행은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완을 통해 긴장한 심신을 편안한 상태로 바꾸어 줄 수 있다.

최근에는 명상요가 콘텐츠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요가학원에 직접 가서 배워야 했던 요가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집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유튜브라는 웹 기반의 영상 공유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신도들과 스님들의 소통이 제3의 가상공간에서 가능해졌다. 탈공간화 즉, 스크린을 통해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제3의 가상공간에 모여 연결된 것이다.

탈공간화가 되면 사찰의 크기, 장소와 거리는 더이상 중요한 제약 요소가 되지 않는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업로드한 콘텐츠를 중국, 영국, 아프리카 등



월정사 부처님오신날 행사의 불단

세계 곳곳에서 보는 일이 가능해졌으며, 공간의 제약 없이 오직 스크린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것이다.

‘위드With 코로나시대’ 이전부터 이미 다수의 사찰들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신도는 물론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하여 포교布教영역을 확장해 왔다. 대표적으로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최근 온라인 방송국(OWBN)을 개국하였으며,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웹사이트인 ‘www.owbn.co.kr’에 접속하면 현재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시불공, 금강경 기도, 참선 등 모든 채널을 한곳에서 시청할 수 있다. 게다가 월정사의 각종 법회 영상과 법문 영상까지도 찾아보는 일이 가능해졌다.

온라인불교대학 시대 개막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사찰들은 자체적인 불교대학의 운영에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찰들이 불교대학의 운영을 중단했을 때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튜브불교대학을 개설하여 진행한 사찰이 있었다. 바로 대구 도심 최대 포교도량 한국불교대학이다. 한국불교대학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상황에 대응해 가며 유튜브불교대학을 개설하여 온택트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회주 우학스님이 직접 금강경 강의, 육조단경 강의, 생활법문과 다양한 신행프로그램 등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이와 같은 유튜브불교대학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신도들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유튜브 댓글 기능을 이용해 글을 올리고, 유튜브불교대학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모아 다시 유튜브를 통해 답변해 줌으로써 살아있는 소통이 이루어진다. 신도들의 입장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은 유튜브불교대학의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유튜브불교대학에 입학 후 불교대학과정을 마치면 기존 오프라인 과정과 마찬가지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사찰에 가야만 배울 수 있었던 불교대학과정이 이제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내 집이 법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부대중이 함께 만드는 사찰 방송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전면全면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종교 역시도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은 사찰에서 방송과 관련한 부서를 조직하는 것이다. 스님과 신도가 협력하여 방송부를 만들어 기획하고, 촬영도 같이 분담하여 진행할 수 있다. 최근 영상 콘텐츠가 대중화되면서 좋은 방송장비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고 있으므로 비싸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추천하는 방송장비는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다. 별도로 추가적인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도 휴대폰만 있으면 바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편집 또한 관련된 다양한 앱app이 출

나와 모두의 행복을 위한 불교 수행

이철헌 |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시되어 있어 휴대폰을 통해 간단한 처리가 가능하다. 물론, 전문적으로 고품질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양질의 장비들과 컴퓨터가 필요하겠지만 처음부터 부담이 커져 버리면 시작하는 일조차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신도들과 방송부를 만들어서 포교하는 일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옛말에 ‘작시성반(作始成半)’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반이며, 무슨 일이든 시작이 어려운 것이다. 콘텐츠를 기획해 보고, 하나씩 접근해 나간다면 어렵지 않게 온라인 포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영상을 이용한 신행활동

영상 콘텐츠가 유튜브를 통해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webex나 zoom을 활용하여 신도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있다.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에는 국내의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불교 신도들도 클릭 하나로 시청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webex와 zoom을 통해 가상공간을 만들면 방 번호를 공유한 사람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생기며, 이를 통해 사찰에서 신도들과 영상으로 소통하며 기도와 회의 등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배우기도 쉬워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webex와 zoom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콘텐츠에 대한 기획이 중요하다. 예불, 기도, 불교대학, 고민상담 등 어떠한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지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PPT와 동영상, 사진 등을 활용한다면 단순히 목소리로만 진행할 때보다 전달력에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외국어 자막을 통한 포교

영상 제작에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불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방안 역시 고안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해외 불자들을 위해 외국어 자막을 붙여주는 것이다. 즉, 불교문화권인 베트남 및 태국, 일본 등 불교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언어로 자막을 넣어 주는 방법이다. 또한 포교할 나라를 선정할 후 영상에 해당 나라의 자막을 넣어 한국불교 콘텐츠를 소개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불교국가들을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좋은 콘텐츠에 자막을 넣어 해외포교를 진행할 경우 전달력이 향상되어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를 볼 것이다.

사찰과 신도들 모두 신변을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사찰 또한 존재한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 역사가 증명하듯 당연지사(當然之事)인 일이다. ‘위기에 기회가 있고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우리 불교가 코로나19라는 태풍을 부처님의 지혜로 잘 견디고 대응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정각도량**

모든 존재는 행복을 바란다. 예로부터 행복은 수복강녕(壽福康寧)에 있다고 했다. 곧 오래 살고 복 있고 건강하고 평안함이다.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돈, 사랑, 명예, 건강과 다르지 않다. 흔히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행복의 척도라고 말한다. 그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행복한가? 자살률 세계 1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행복은 돈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말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 갑부들은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행복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한다. 현인들은 말한다, 물질을 소유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평안을 느껴야 행복하다고.

그러나 모든 걸 가지고 실컷 누려본 사람은 더 이상 필요없다며 그걸 버릴 수 있지만, 가진 게 없어 배고픈 사람은 못 가져서 안달이다. 돈과 명예와 사랑을 모두 갖춘 이른바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진 고따마 태자는 모든 걸 실컷 누려보았기에 더 큰 행복을 찾으러 출가할 수 있었고 욕망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 설날 어린애한테 세뱃돈을 오천 원 주었는데 “그걸 버리라.” 하면 어린애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오천 원을 버리면 만 원을 주께.” 하면 어린애는 오천 원을 버리고 만 원을 받을 것이다. 만 원을 가진 어린애에게 다시 오천 원을 준다고 만 원을 버리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처님은 돈과 명예와 사랑이 필요 없다고 했다.’고 오해해선 안 된다. 부처님도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들에게 돈과 명예와 사랑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가신자와 출가수행자는 바라는 행복이 다를 뿐이다. 이를 잊어선 안 된다. 재가자는 돈과 명예와 사랑을 가져야 하고 출가자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을 바라야 한다. 그래야 재가와 출가가 구분된다. 어쩌면 재가와 출가의 행복이 혼합되면서 오늘날 불교계가 혼란스러운지 모른다.

비록 재가자와 출가자의 행복이 다를지라도 행복은 요행으로 얻거나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자기 노력이 곧 수행이다. 수행을 뜻하는 팔리어 bhāvanā는 영어로 ‘development, cultivating, producing’으로 번역된다. 곧 수행이란 자기발전을 하는 일이고 자기계발을 하는 일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 경작하는 걸 말한다.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논밭을 갈아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며 꾸준히 가꾸어야 한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수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수행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오늘날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을 5대 수행법으로 삼는다.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삼문수행(三門修行)이라 하여 간경, 참선, 염불을 말했는데 여기에 계율과 보살행을 더 넣었다. 다섯 가지를 반드시 순서대로 수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 하지만 계율을 지키는 일은 가장 근본이 되는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계戒를 뜻하는 팔리어 sila는 영어로 'behavioral discipline, morality, virtue'로 번역된다. 곧 우리가 행동하는 규율이고 윤리이고 도덕이다. 계는 재가자와 출가자가 함께 가지는 자기 다짐이다. 가장 기본적인 계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스님들을 믿고 따르겠다는 삼귀의 계이다. 그리고 재가자들은 오계를 받아 지녀야 한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며,
 주지 않는 것을 훔치고, 남의 배우자를 범하고
 술 마시는 일에 빠져버린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뿌리를 파헤친다.
 그대여 다스리지 못함은 악한 일임을 알라.
 탐욕과 부도덕으로 오랫동안 괴로움에 시달리지 말라. - 담마빠다 246-248

계는 그릇과 같아서 깨어지거나 더러우면 행복을 담을 수 없다. 원효스님은 '계는 사다리와 같다.'고 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가 필요하듯 더 큰 행복을 바란다면 계를 지켜야만 한다. 계를 지키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계를 가진 자는 큰 재물을 얻고,
 훌륭한 명성을 얻고,
 어떤 모임에도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들어가고,
 당황하지 않고 죽으며,
 죽은 뒤에 좋은 곳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 -대반열반경(디가니까야 16)

다음으로는 경전을 읽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이기에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기에 알아야 한다.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일이고, 받들어 행하면 유익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알면 그때 그것들을 받아들이라.
 -갈라마경(양곳따라니까야 3.65)

길을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서 가듯, 몸소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숫따니빠다』와 『담마빠다』와 같은 초기 경전이나 신입생들에게 나눠준 『불교성전』(동국역경원)을 매일 아침 조금씩 읽는 게 좋다.

염불은 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일'이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는 건 부처님을 멘토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나도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일이다. 염불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참선이란 '정신집중, 알아차림, 마음을 고요히 함'을 말한다. 드릴로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을 때 처음엔 땀보다 중심을 잡으면 힘주어 구멍을 뚫듯 정신을 집중해야 이룰 수 있다. 몸을 뒤로 기울이거나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넘어질 듯 불안하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여 자신을 속박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마음이 흥분하거나 산란하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마음을 고요히 해야만 한다. 계율이 수행의 근본이라면 간경과 염불과 참선은 실제 수행이라 할 수 있다.

보살행이란 수행을 통해 얻은 행복을 나누는 일이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생명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일이다. 수행은 혼자 행복을 얻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게 수행의 마무리이다. 밤길을 갈 때 나 혼자 촛불을 들고 가는 것보다 내 촛불로 다른 사람의 초를 밝혀서 함께 가면 주변이 더 밝아지는 것과 같다.

수행은 자기발전이고 자기계발이다. 자기를 일깨우는 일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어도 몸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요가에서 가장 힘든 행위는 요가 매트를 까는 행위이다. 요가 매트를 깔기까지가 힘들지 일단 매트를 깔고 나면 요가를 한다. 본인도 매일 아침 108배를 한 지 오래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핑계를 대며 빼먹으려는 유혹이 언제나 일어난다. 그래서 눈뜨면 얼굴을 씻기보다 먼저 하는 일이 방석을 까는 일이다. 수행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나 계속하는 게 힘들다. 수행은 밥 먹듯이 해야 한다. 원효스님은 '배고프면 먹을 줄은 알면서도 진리를 배워 어리석음을 고칠 줄은 모른다.'고 하면서 '한순간에 백년인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고 한평생이 얼마기에 수행하지 아니하고 게으름피우나.'하고 타이르고 있다.

자신이 등불이 되면 주위가 환해지듯, 수행은 자기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해 준다. 마하 깟사빠는 열심히 수행하는 이유를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에서의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이며, 둘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자비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런 수행을 따라서 수행하면 오랫동안 그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늬음경(상숫따니까야 16.5) **정각도량**



일일부작 일일불식

김봉주 | 보현회장, 불교학술원 행정팀장

정각원에서 근무한 인연이 10년이 넘었다. 그 인연이 이 글을 쓰게 한다.

순수한 마음

어린 순남이는 눈을 떴다. 초가집에는 날이 저물어 어둑하다. 집에 아무도 없다고 느낀 순남이는 울음을 터트린다. 혼자다. 들일 가신 부모님이 아직 안 오셨다. 무서워진 순남이는 신작로를 걸어 들녘으로 갔지만 어둠은 더 짙어 온다. 좀 더 가면 달빛 아래 일하는 엄마가 있겠지만 어둠이 무서워 더 갈 수 없다. 신작로 가늠에 받쳐놓은 리어카 아래로 들어갔다. 바퀴 옆에 붙어 있으면 덜 무섭거니..., 까무룩 잠이 들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리어카가 빠지고 달빛 아래 드러난 순남을 발견한 엄마는 깜짝 놀라신다. “어떻게 니가 여기 왔니?” 엄니 말에 순남은 또 울어버린다. 아빠는 순남을 볼 끈 들 어 리어카에 올린다.

순남이는 어떤 마음으로 그 밤에 혼자 그 들녘을 걸어갔을까? ‘내 마음의 금언’을 쓰는 지금, 세월이 흘러 어머니 까막까막 치매기가 있으시다.

마음 1

저 모퉁이만 돌면 마을이 보인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순남이는 10리를 걸어서 학교에 다녔다. 오늘은 탁구부원들과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바람에 혼자 어두운 밤 10리 길을 가야만 했다. 가방을 멘 순남이는 양쪽 주먹에 돌멩이를 움켜쥐고 밤길을 걷는다. 밤의 포플러 가로수 길은 적막하고 무섭다. 뛰듯이 걸었지만 우리 동네는 아직 멀다. 저 고개를 내려가 공동묘지만 지나면 모퉁이가 나온다. 불끈 쥐 두 주먹 안의 돌멩이에도 땀이 배어 있다. 모퉁이를 도는 그 지점은 어둠이 더 진하다. 낮에 그곳을 돌 때면 항상 친구들이, “밤에는 여기서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한 곳이다. 그 생각이 난 순남은 더 빨리 그곳을 향해 공동묘지를 지나치는데, 어! 포플러 나뭇가지에 진짜 도깨비가 있다. 자기들만의 말을 하고 손을 흔들며 이리 오라 한다. 오줌이 짙끔... 엄마, 엄마, 이곳을 지나야 하는데..., 도깨비는 한 놈이 아닌 듯하다. 간을 꺼내 먹는다는데, 눈을 질끈 감고 죽어라고 뛰다. 아! 우리 동네가 보인다. 순남은 집에 도착해, “엄마, 오늘 도깨비를 봤어요. 나무에서 여러 마리가 나를 부르는데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등갯길에 누나와 그 모퉁이를 돌면서 포플러 가로수를 유심히 보았다. 하하하~ 세상

에, 커다란 비닐이 바람에 날려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 낸다. 무서운 마음, 바람에 날린 비닐을 도깨비로 생각하고 오줌을 짙끔 거린 그 마음은 내가 만든 것이었다.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며 귀신이나 축생 혹은 지옥도 만든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따라 온갖 법이 일어난다.” (동국역경원, 『불교성전』, 128쪽)

마음 2

퇴임을 앞둔 선배에게 물었다. 그는 하늘 같고, 부처님 같고, 형님 같은 순남의 의지처였다. 부처님은 법당에 앉아 계시지만 그는 나와 같이 움직였었다. “나가시면 누구를 의지해 이 험난한 조직생활을 할까? 겁이 납니다.” 그 선배는 지긋이 내 눈을 쳐다보더니, “누구에게 물을 것이 있냐? 자기 자신과 법에 의지하고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나는 가뜩이나 좋은 말로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웬 부처님 말씀. 서운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얼마 남지 않은 종착역을 생각하자니, 정말 금언이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동국역경원, 『불교성전』, 108쪽)

“우리는 참된 벗 얻기를 바란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대등한 친구는 가까이 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는 허물을 짓지 말고,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동국역경원, 『불교성전』, 206쪽)

마음 3

멋있다. 마이크를 잡고 대중 앞에 서면 그는 유머가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처님을!” 대중을 유도하는 그의 잘생긴 외모와 목소리에 반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순남이는 항상 갈증이 심했다. 지식에 대한 갈증. 그러나 게으르고 머리가 따라 주질 않는다. 눈치도 끈기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갈팡질팡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어느 날 동아리방을 찾았는데, 룸에는 아무도 없다. 법당 문을 열어 보니 그 선배가 있다. 순남이는 이때다 싶어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마 20대 초반이라 종교에 대한 흔들림을, 그리고 낙약함을 진실되게 물었던 것 같다. 한참 순남의 말을 듣고 있던 선배는 지긋이 웃는다. 간결한 대답이다. “믿음이 약하다는 건 ‘믿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든 활동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장 튼튼한 기반이다.” 근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본다.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 음식¹⁾

안양규 |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요, 온갖 착한 행위에 이른 길을 키워주네.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착을 벗어나서 위없는 열반의 길을 열어 보이네.

(『화엄경』 「현수품」)

마음 4

화가 단단히 나서 순남이는 퇴근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안전에 회사 동료가 발끈해서 한 말이 못내 분했다. 그러나 참는 게 미덕이라고, 아무 말 없이 회의를 마친 게 화근이었다. 아내와 마주한 밥상머리에서 낮의 그 일이 떠나질 않는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지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잊어버리고 밥이나 먹으라고 한다. 떠나지 않는 생각이 계속된다. 잠자리는 기분 좋게 자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해 기쁨과 희망을 기도하며..., 그러나 낮에 있었던 그 일이 다시 생각나 욱하고 만다. 내일 회사에 나가면 본때를 보여주리라! 생각하고, 순남은 잠을 청한다. 다 죽었어! 니들은.

순남은 일찍 일어나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부처님 글을 읽는다. “평상심이 도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순남이는 어젯밤의 ‘니들 다 죽었다’는 생각에서 놓여난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마음이 가볍다. 오늘 그를 만나면 웃어 주자.

마음 5

1984년 5월 초순, 대학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삼삼오오 앞으로 있을 축제에 들떠 있다. 순남이는 동아리방에 올라가 시끄러운 축제의 장을 벗어나 여름방학 때 갈 하계수련회 장소를 찾아 떠나자고 동기들과 의논한다. 전라도와 충청도다. 지난번 대학생 수요법회에서 원장 스님께서 수고한다고 주신 5만 원이면 교통비로 충분하다. 임원 몇 명이 사전답사 길에 나섰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우린 즐거웠다. 서산의 수덕사와 개심사, 그리고 대학 선배의 집이기도 한 태고종의 한 사찰을 돌아 전라도로 갔다.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길에 담양 절 뒷산의 바람에 넘어진 왕대나무를 가지고 올라왔다. 스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대나무 지팡이가 부러워서 그런지 다들 하나씩은 챙겼다. 동아리방으로 돌아온 순남이는 그 쓰임새를 곰곰이 생각하다 필통을 만들 생각을 했다. 서너 개를 잘라 파릇한 껍질을 벗기고 옛 선사들이 즐겨 쓰시던 말을 그곳에 새겨 두고두고 보고 싶다. 당시 백장선사의 ‘일일부작 일일불식’이 순남의 머리에 떠올랐다. 글씨를 잘 쓰는 동기 범우에게 멋지게 써달라고 했다. 잘도 쓴다. 그 필통을 가지고 목공실에 간다. 니스 칠을 해서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서다.

어떤 계기로 쓰게 되었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나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날은 먹지 않는다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체화되어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다가올 제2의 인생,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화두가 되고 있다. **정각도량**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두 번의 공양이 중요시되고 있다. 정각 직전의 수자타Sujata의 공양과 입멸 직전의 춘다Cunda의 공양. 본고에서는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처님께서 춘다가 준비한 마지막 음식을 공양하시고, 질병에 걸려 입멸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일보의 한 기사는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상한 돼지고기를 드시고, 식중독에 걸리셨다. 그것 때문에 결국 돌아가셨다”(2020년 8월 18일). 식중독으로 인해 부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이런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도 있다. 본고에서는 부처님께서 드신 마지막 음식이 식중독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마지막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붓다고사Buddhaghosa의 입장을 살피고자 한다. 붓다고사는 5세기경 활동하였던 인도 출신의 스님으로 스리랑카에 가서 삼장을 배우고 주석서를 정리하고 작성한 학승이다.

1. 마지막 공양 음식은 무엇이였을까?

부처님께서 취한 마지막 음식물, 즉 sūkaramaddava(수-카라맛다바)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최근까지 쓰였다. 많은 논문들이 이 음식물은 고기가 아니라 채소라고 밝히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육식보다 채식을 높이 평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특히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나 육식을 금지하는 불교도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다. 수-카라맛다바의 정체에 관하여 몇 가지 입장이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시되어 왔지만, 부처님께서 이 음식으로 인하여 질병을 얻게 되고 입멸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해석이 만연해 있다.

팔리어 『열반경』을 주석하면서 붓다고사는 이 최후의 음식물에 관한 서로 다른 여러 견해들을 소개하고 있다. 붓다고사 자신은 수-카라맛다바를 “너무 어리지도 너무 늙지도 않은 특상의 돼지에서 나온 신선한 고기”로 정의한다. 그는 다음의 두 견해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수-카라맛다바는 소에서 생산된 5종의 액체와 부드럽게 익힌 쌀을 섞어 만든 요리들의 총칭이다. 또 하나의 견해에 의하면, 일종의 불사약의 이름이다. 담마팔라Dhammapāla는 또 다른 두 개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①돼지고기 그 자체가 아니라 돼지들이 짓밟은 죽순이다. ②돼지들이 밟고 다니는 장소에 생긴 버섯이다. 현재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서는 수-카라맛다바를 “연한 어린 돼지고기”로 이해한다.

1) 본고는 『붓다의 입멸에 관한 연구』(안양규, 민족사 2009년) pp. 133-160에 근거하고 있다.

팔리어 『열반경』을 제외한 다른 제본들은 최후의 음식에 대해 그렇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팔리어(Pali) 『열반경』에 상당하는 한역본(漢譯本)들을 살펴보면, 오로지 『유행경』만이 마지막 음식을 전단수이(梅檀樹耳, 즉 버섯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나머지 한역본들은 맛있고 훌륭한 음식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팔리어 본과 『유행경』을 제외한 한역 제본과 산스크리트어 본이 음식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후대가 되면서 음식의 정체(正體)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이 무엇이였을까라는 의문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정확하게 이 음식이 무엇이였는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붓다고사의 견해: 마지막 음식은 질병을 완화시켰다

팔리어본 『열반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춘다가 준비한 음식을 먹을 때, 치명적인 질병이 일어났다. 부처님은 그 질병의 고통을 견디어냈다. 부처님은 한 길에서 벗어나 한 나무의 밑으로 가서 아난다(Ānanda)에게 지쳐있기에 눕고 싶으니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달라고 말했다. 이상 『열반경』의 기술을 통해 독자들은 부처님은 춘다가 바친 음식을 먹고 병이 났고, 병고가 완화된 뒤 피로에 힘겨워 휴식을 취했다고 자연스럽게 오해하게 된다.

그렇지만, 붓다고사는 문제의 음식을 든 뒤 부처님께서 병에 걸렸다는 부분에 관한 이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 춘다가 이 음식을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시키고 요리시켰기 때문에, 이 음식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음식을 취하고 부처님께서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게 된다. “질병은 부처님께서 공양할 때, 발생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 음식을 공양했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공양하지 않았을 때, 질병이 일어났더라면, 그 질병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다즙(多汁)의 음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의 병은 심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연고로 부처님께서 걷어갈 수 있었다.” 붓다고사는 음식이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병고를 완화시켜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붓다고사는 이러한 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 첫째, 『열반경』에 의하면, 부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었다고 부처님께서 선언하고 있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 음식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의 선언은 거짓이 되고 만다. 그래서 붓다고사는 부처님의 선언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춘다가 공양한 음식은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질병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열반경』에 의하면, 여래의 정각(正覺) 직전의 공양과 입멸(入滅) 직전의 공양의 과보는 다른 어떤 공양보다 더 수승(殊勝)하고, 이 두 공양은 똑같은 과보를 초래한다고 부처님께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춘다는 이 음식을 공양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춘다의 음식이 치명적인 발병원인이라고 춘다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그의 공덕을 칭찬해야 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하고 있다. 즉 마지막 공양물은 비난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부처님

의 정각이 길상(吉祥)스러운 사건인 것처럼, 그의 입멸도 똑같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입멸 전에 준비된 음식도 특별한 것으로 여겨져야지, 식중독의 원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식으로 붓다고사는 어떻게 최후의 공양이 부처님의 입멸을 도왔는지 설명하고 있다. 정각 직전 수자타(Sujata)의 음식을 먹고 부처님께서 힘을 내어 정각을 이루었다고 초기 경전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붓다고사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이 두 경우, 전 세계의 신들이 영양소를 음식에 주입했다. 이 훌륭한 음식은 부처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했다. 음식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그의 의근을 포함한 육근(六根)은 유난히도 찬란했다.” 특별한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물은 육체에 해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다.

셋째, 『열반경』에 의하면, 벨루바(Beluva)에서 우안거(雨安居) 시작 직후 부처님께서 질병을 얻게 된다. 이 부분에 관하여 붓다고사는, 그 당시 부처님께서 향후 10개월 동안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주석하고 있다. 춘다의 음식을 취할 때 일어난 질병은 사실 부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은 기간의 종료 시기에 발생했던 것이다. 그래서 음식이 부처님의 발병 원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진실인즉, 부처님께서 이 훌륭한 음식 덕분에 병고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결코 식중독의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공양이 식중독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입장이 상식처럼 된 것에 대해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붓다고사의 견해를 소개했다. 부처님의 입멸 직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춘다가 준비한 음식을 먹은 후 질병에 걸린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춘다의 음식이 곧 질병의 원인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부처님께서 무기력하게 식중독에 걸려 설사병에 시달리면서 최후를 마감했다고 하는 주장을 불자들이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후 공양이 부처님의 원기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주장을 외면하고 식중독으로 죽었다는 견해를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붓다고사의 견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각도량**



마라의 유혹과 장애의 극복

김경래 | 불교학부 조교수

마라Mara는 타화자재천을 다스리는 천신이다. 그는 초기불전에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유혹하고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등장하는 짓궂고 악한 캐릭터로 묘사된다. 그러나 마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속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용맹 정진하는 수행자들은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요소였을 것이다. 마라가 거주하는 영역인 타화자재천은 욕계의 최상위 단계로서, 수행자들이 색계선을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그러므로 불교적 우주관 속에서 마라는 욕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단이탈하려는 구성원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초기불전에서 이 마라가 모종의 '번뇌'로도 광범위하게 해석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마라는 수행자 스스로 일으킨 상념 혹은 기억들로 재해석 될 수 있다. 초기불전의 수행체계에 따르면, 중생은 선수행의 첫 단계에 오를 무렵 생각을 일으키는 힘이 극대화된다. 마라의 등장은, 그렇기에 수행의 전개과정 속에서 수행자 자신이 일으킨 내적 갈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경전 『상윳따 니까야Samyutta Nikāya』 중 「비구니 상윳따 Bhikkhuni-samyutta 5.5」를 살펴보자.

어느 날 마라는 안다숲(Andha Vana)에서 홀로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우빨라완나 비구니 스님을 발견하고는 다음과 같이 희롱한다.

비구니여! 활짝 피어있는 살라나무 밑에
홀로 서 있는 그대의 모습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군요.
어리석은 여인이여! 그대는 불한당들이 두렵지도 않나요?

실제로 우빨라완나 스님은 초기불전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수행자로 묘사되고 있다. '우빨라완나'란 푸른 연꽃(uppala) 앞에서 우러나오는 금빛(vaṇṇa)이란 뜻으로, 우빨라완나 스님의 아름다움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 아름다움은 오히려 수행의 걸림이 되었기에, 출가 이후 우빨라완나는 주로 안다숲과 같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정진했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 여기서 마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마라는 인간계를 초월해버린 우빨라완나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회귀하기를 강요하는 천신이다.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나무와 함

께 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 자칫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각인 시키며 마라는 우빨라완나의 수행의지를 꺾으려 했다. 둘째, 마라는 우빨라완나 스스로가 일으킨 상념 혹은 지나쳐온 기억이다. 『법구경 주석서(Dhammapada Atthakathā)』에 따르면, 우빨라완나는 실제로 안다숲에서 수행하던 중 자신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괴한을 만나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다. 그 과거 혹은 미래에 닥칠 사건이 떠오르며 수행의 내적 장애가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우빨라완나는 비구니 승단을 이끌었던 리더로서, 당대 비구니 스님들 중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셨다. 부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해탈로 이끌기 위해 3개월 간 천상설법을 마치고 천신들의 시중을 받으며 내려오실 때, 우빨라완나는 자신의 신통력을 사용하여 당시 부처님을 기다리던 모든 아라한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부처님을 맞이했던 바 있다. 이러한 높은 경지에 오른 우빨라완나였기에 그녀는 마라의 희롱에 당당히 맞선다.

백이고 천이고 간에
여기 그대 같은 불한당들이 와있다고 해도
나는 털끝하나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라여! 내 비록 홀로 있지만 너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라져서 너의 뱃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심지어 눈썹 사이에 서있더라도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마음을 통제하는 힘을 길렀고, 신통력을 완전히 갖추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기에, 나는 네가 두렵지 않구나. 친구여!

이 계송을 들은 마라는 겁에 질려 곧바로 사라졌다고 한다. 우빨라완나의 계송에는 그녀의 외적 아름다움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수행자로서의 품격이 담겨있다. 우빨라완나를 희롱한 것은 욕계 최고 악신인 마라였을 수도 있고, 수행의 과정에서 떠오른 자신의 상념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탈을 향한 우빨라완나의 강인한 의지와 대수롭지 않게 그 장애를 넘어서는 대장부다운 풍모는 초기불전의 독자를 매료시킨다.

우리는 종종 공부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곤 한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매번 장애를 만나게 된다. 그 장애는 초기불전의 마라처럼, 외적요인으로든 혹은 내적요인으로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를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의 길에서 나름의 경지에 올랐음을, 다시 말해 장애에 직면할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초기불전 속 스승들은 그렇기에 지금 우리 곁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장애를 기꺼이 맞이하고, 그것을 의연하게 넘어서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때 '나'는 더욱 성숙한 경지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격려해준다. **장각도향**

매일매일 '아이'라는 불성의 존재와 만나다

백지숙 |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자존적 생태관과 '아동'은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교육의 주체임을 일깨워준 불교 아동관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예비교사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교육이 곧 미래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며, 교사가 보람을 갖는 어린이집'이라는 철학과 함께 보육현장에서 25년째 아기 부처님과 만나고 있다. 스승으로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지혜로운 가르침이란 또한 무엇일까? 수없이 고민하고 반성하게 된다.

엄마의 품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생각만 해도 뿌듯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기만 했을까? 돌아보면 행복감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극에 따라 기쁨, 슬픔, 불안, 공포 등의 감정을 기본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에 대한 미래의 첫걸음은 바로 이런 감정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는 것에 있다.

중국의 극동지방에는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대나무가 있다. 이 모소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매일 정성으로 돌봐도 4년간 고작 3센티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 만에 30센티 이상 자라고 6주가 지나면 무려 15미터 이상 성장하면서 순식간에 대나무 숲을 이룬다. 겉으로 보기엔 매우 짧은 시간에 폭풍 성장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깊고 튼튼하게 성장할 준비를 했던 것이다. 아이도 그렇다. 믿고 기다려 준만큼 자라고 성장한다.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서 미래와 희망을 본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무대이다. 아이들은 그 무대 위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먹고 자란다. 교사란 그런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그것을 '이런 아이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오만'이며 '욕심'이다. 무엇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은 아이를 향한 높은 기대치를 갖게 되고, 높은 기대치만큼 미숙한 아이의 행동은 마음에 들리 만무하다. 오히려 모자라는 점만을 찾아서 '안돼'와 '하지마'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하루를 보낼 것이다.

4살 반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이다. A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미끄럼틀을 타거나 그네를 타는 친구들과 달리 유난히 긴장하는 표정의 한 아이가 보였다. 그 표정으로 보아 평소 놀이기구를 자주 타보지 못했거나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 보였다. 문제는 선생님이 그네타기를 지도할 때였다. 아이가 그네타기를 싫어하자 선생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렇게 그네 줄을 잡고 그네 판에 엉덩이를 데고 앉으면 돼요.'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엉덩이를 뒤로

뺐다. 고집을 부리는 아이에게 선생님은 더 집중하며 다시 이렇게 말했다. '울지 말고 선생님 말 들으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친구들도 다 이렇게 잘 타잖니? 용기를 내보자.' 선생님의 열의에 찬 지도가 5분간 이어졌지만 끝내 아이는 그네를 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B선생님이 무섭다는 아이의 말을 부정하지 않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리고 먼저 그네에 앉아서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네를 움직였다. 불과 2~3분 만에 아이의 몸은 선생님과 함께 그네에 실렸고 '어때? 생각보다 안 무섭지?'라는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다. 같은 아이, 같은 공간, 다른 것은 선생님이었다.

B선생님에게서 아이는 그네를 탔고 A선생님에게서는 그네를 타지 않았다. B선생님에게서 아이는 애정과 관심, 인정이라는 존중감을 느꼈고 A선생님에게서는 일방적 권유와 가르침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한 어른은 아이의 이야기에 경청했고 한 어른은 무시했다. 그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달랐다. 사회가 변화하고 양육이라는 가정의 기능이 사회로 확대되면서 만 2세 영아 중 90.3%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 시기에 어린이집에 오면 선생님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아이와 교사와의 관계는 생애초기 인간관계의 출발이 되는 중요한 관계이다. 때문에 교육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을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성장시키면서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동자 소냐가 필사적인 수행을 계속하면서 속히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함을 괴로워하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소냐의 공부를 도와주었다.

부처님이 소냐에게 물었다.

"너는 집에 있을 때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세존이시여, 저는 거문고를 탈 줄 압니다."

"그러면, 소냐야, 거문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떠하더냐?"

"세존이시여, 너무 팽팽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냐야, 거문고의 줄이 너무 느슨하면 또 어떠하더냐?"

"세존이시여, 그것 역시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소냐야, 정말 그렇다. 거문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해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수행도 그와 같느니라. 쾌락에 빠지거나 고행을 일삼는 것 모두 다 바른 태도가 아니다. 지나치게 서두른다면 고요한 심경을 거둘 수 없고 너무 긴장을 푼다면 게을러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 소냐 너는 그 중간을 취하도록 하여라. 『신수장경, 제2권 중』

이 짧은 대화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교사의 역할과 교육이 어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과 기질, 개인차를 고려하여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깊이 살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자 중요한 가치이다.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아이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매일매일 '아이'라는 불성의 존재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정각도량**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신중神衆님

진욱 스님 |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강사

“진욱아, 진욱아!”

자전거를 타고 밤길을 달리는 나에게 무서움을 잊게 해 주는 보호막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멀리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스님의 목소리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랐다. 우리 절과 학교까지는 거리가 꽤 있었고 마땅한 이동 수단이 없었던 터라 자전거로 통학을 했다. 지금의 우리 절은 산꼭대기까지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고, 그곳에 넓은 주차장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오솔길을 따라 나지막한 야산을 걸어서 넘어야만 절까지 갈 수 있었다. 지금도 산꼭대기의 주차장에서부터 절까지는 계단을 따라 걸어 내려가야 한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했고 자율학습이 끝나면 온 세상은 깜깜한 밤이 되어 있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친구들과 각자의 자전거를 타고 함께 올 수 있지만, 큰 도로에서 90도를 꺾어 논두렁을 지나 산까지 오는 길은 오롯이 나 혼자만의 길이였다. 이때부터 나에겐 두려움이 시작된다. 칠흑 같은 어둠과 조용한 세상이 불쑥불쑥 나에게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때부터는 자전거 페달을 있는 힘껏 밟으며 온 힘을 다해 빨리 움직이려 애를 썼다. 어둠과 고요가 가져다주는 무서움과 불안함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자서 공포와 싸우고 있을 즈음, 멀리 산꼭대기에서 작은 불빛과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진욱아, 진욱아!”

내 이름을 듣는 순간, 한 줄기 빛이 크고 둥그란 투명막을 만들어서 나를 그 안에 넣어 보호해 주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까지 무서움에 휩싸였던 나는 온데간데없고 어느새 편안하고 느긋해지는 것을 느꼈다. 독길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오솔길을 따라 산을 오르는 동안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 스님의 목소리에 의지해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절에서 생활했지만, 불법佛法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출가出家하게 되었고, 출가 이후 서서히 발심發心했다고 할 수 있다. 나와 같은 경우를 흔히 동진출가童眞出家라고 한다. 불붙는 신심信心이 바탕이 되어 출가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은근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하는 온돌 같은 신심信心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 법을 배워나가면서 내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더 굳건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중학생 시절의 내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스님 목소리에 의지하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스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은 확고했고, 그 작은 믿음에 진심이 보태어져서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튼튼한 보호막을 생성했던 것이다. 또한 그 보호막은 나에게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되었다.

내 경험과 비슷한 이야기를 부처님의 생애에서 찾았을 때 나는 무척이나 반가웠다. 부처님께서 성도成道하신 후, 49일 동안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셨다. 7일씩 나누어 자리를 옮겨가며 법열法悅을 만끽하셨다. 다섯 번째 7일간 연못 기슭에서 선정禪定에 잠겨 계실 때였다. 때아닌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졌는데, 무찔린다Mucalinda 용왕이 부처님의 온몸을 감싸고 일곱 바퀴로 둘러싼 뒤, 자신의 머리를 한껏 펼쳐 거친 비바람과 폭풍우를 막아주었다고 한다. 또한 빈틈없는 매서운 눈매로 다른 짐승과 벌레들이 부처님의 선정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고, 폭우가 다 그친 이후에야 무찔린다 용왕은 부처님을 감췄던 몸을 풀고 연못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이때 무찔린다 용왕은 온몸으로 내던져서 부처님을 보호해드리는 호법선신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부처님의 생애를 읽으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투명한 보호막을 생각했던 것과 무찔린다 용왕이 부처님을 보호하고자 스스로 향심向心을 일으킨 것을 같은 범주에 넣고 무척이나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상력이었지만, 그 상상력이 어린 마음에 커다란 힘을 보태어 주었고, 나만의 신중神衆님을 만난 것 같은 기쁨도 함께했었다. 신중은 신장神將, 성중聖衆, 선신善神이라고도 불린다. 그 역할을 불법佛法을 옹호하고, 불법을 믿는 우리 또한 보호해 주는 것이다. 호법신중護法神衆의 이야기는 불교 경전의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千手經』을 빼놓을 수 없다.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으로 『천수경』이 시작되고, 그다음은 바로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五方内外安慰諸神眞言이 이어진다. 동·서·남·북·중앙의 오방五方과 안과 밖의 내외内外에 계신 모든 신神들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진언이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이다. 여기서 모든 신은 일반의 제신諸神과 호법성중護法聖衆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전을 읽기 전에 구업口業을 청정하게 한 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호법선신護法善神이 경전을 읽기 시작하는 우리를 옹호해 주시기를 청한다. 그와 동시에 경전을 읽는 우리가 호법선신이 함께 경전을 경청하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경전을 읽는 이곳으로 선신들이 빨리 달려와서 법회의 공덕을 성취하라는 내용이 진언 속에 포함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어떤 법문 자리라도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하셨으니,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들도 당연히 법회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호법선신은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니 경전이 설해지거나 법회가 열리는 곳에 앞다투어 와서 철통같이 보안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두려움 가득 밤길을 걸어야 했던 중학생인 나에게 호법선신은 우리 스님의 목소리였다.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는 나의 신중님을 오직 간절함으로 불러 내 주위에 머물게 했고, 그 신중님이 만들어준 투명 보호막 속에서 무서움을 떨쳐내었다.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셨을 때 무찔린다 용왕은 스스로 호법선신

이 되어 부처님을 보호하였다.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에 등장하는 제신諸神은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의 법회에서 공덕을 얻어가기도 한다. 각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신중이 다른 모습이고 다른 역할인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이라는 공통어를 찾을 수 있다. 단지, 그 믿음의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이다. 중학생인 나는 온전히 투명 보호막을 믿고 있었고, 무찔린다 용왕은 부처님을 믿고 보호해드리고 있었으며, 오방내외의 제신과 우리 사이의 믿음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쌍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성벽은 어떤 자재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튼튼함이 다를 수 있다. 부실한 재료로 성을 쌓으면 그 성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 내릴 것이고, 단단하고 튼튼한 재료를 이용한다면 견고한 성으로 오래 보존될 것이다. 믿음의 성도 마찬가지다. 앞뒤 살피지 않고 무조건 믿는 맹신盲信으로 쌓은 성은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생기면 금방 무너져버릴 것이다. 금슬 세공사가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검토한 후, 필요한 용도에 따라 금을 활용하는 것처럼, 확신確信으로 쌓은 믿음의 성은 그 어떤 성보다도 견고하여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적군의 공격이 있더라도 그 단단함을 뚫을 수 없을 것이다. 신중님은 불법과 불법을 배우는 우리를 동시에 옹호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분들이니, 불교를 믿는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조금은 높고 멀리 계신 듯한 불보살님을 대신해서 신중님은 늘 우리 곁에서 가까이 있는 존재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나 위협이 다가오는 순간이 생긴다면 내 주위에 계신 호법신중님께 신호를 보내서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다. 불심佛心이 있는 누구라도 외면하지 않으실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혼자서 어두운 밤길을 걷거나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 오면, 이 장면이 떠오른다. 멀리서 우리 스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순간 나에게 투명 보호막이 우산처럼 펼쳐져서 어떤 누구도 그것을 뚫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 말이다. 다만 중학생 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굳이 투명 보호막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호법신중님이 시방세계에 두루 하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믿음이 더해진 것이다. **정막도량**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ilove.dongguk.ac.kr



소액기금모금 캠페인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동경주캠퍼스
dongguk university gyeongju



소액기금모금 캠페인

동대로 1.2.3



- 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로명 주소 : **동대로 123**
- 2 교육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동대로 123**
- 3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대로 123** 매월 1만원, 2만원, 3만원 참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처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100주년기념관 3층 대외협력실
전화 054) 770-2200 / 2500 팩스 054) 770-2003 <http://ilove.dongguk.ac.kr>

기부 어렵지 않아요! 쉬운 기부! 즐거운 기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핸드폰 QR코드검색 후
참여신청서 작성

스마트폰(QR코드) 약정

02



참여신청서 작성후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
010-6516-1027

휴대폰 사진전송

03



발전기금 홈페이지 또는
팩스·우편·전화로 참여

홈페이지·종이·전화약정

후원금은 여기에 사용됩니다.

후원금 전액은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



인재육성 장학기금



특정목적기금

1인 1월 1만원

만인공덕 인재불사

동국사랑

1·1·1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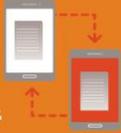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여
한국불교의 증흥과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동국사랑 1·1·1 캠페인 동참 방법

1

휴대폰 사진 전송



본 포스터를 사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1800-3283)

※휴대폰으로 담당직원이 전화 연락드리겠습니다.

2

스마트폰 약정



스마트폰으로 상단 QR코드를 스캔 후,
모바일 약정서 작성

스캔
방법

- ①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다음앱 접속
- ② 검색창 오른쪽 마이크 아이콘 클릭
- ③ 코드 메뉴 클릭 및 QR코드 스캔

3

후원 문의



전화 : 02-2260-3300
홈페이지 : ilove.dongguk.edu
팩스 : 02-2260-3796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참여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